



친척에게 이런 감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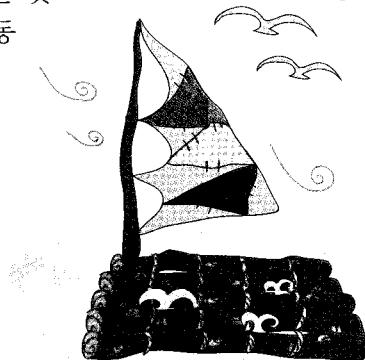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저... 친척동생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생이고... 그 아아도 고등학생이죠... 1살 어려요... 많이 친하긴 한데... 문제는 자꾸 그 애가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둘이 어디를 가면 꼭 테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만져보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키스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제가 변태일까요... 어떻게 친척에게 그런 감정이...

친 척동생에게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군요. 친척동생이 단지 동생으로보다는 한 사람의 이성이라는 감정이 앞서 혼란스럽겠군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혹시 자신에게 어떤 잘 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친척이라고 해서 이성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친척동생에게서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될 경우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게 잘못 같아서 극단적으로 '변태'가 아닌가 고민하기도 하지만 '변태'는 아니랍니다.

친척이기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오누이이기에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대하고 자연히 더 강한 친밀감이 생기죠. 친척만 아니라면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친인척간의 오누이는 남다른 유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의논의 대상이 되어 주기도 하며 서로 보호해 주고요. 이성간 사랑의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애타한 것인지 모르죠.

친인척이라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사회, 윤리, 도덕, 종교적인 부분에서 금기되고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여동생(또는 남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동생(남동생)에게 어려움 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려 노력하고 도움 주기를 아끼지 않거든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이죠.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랑이랍니다.

동생과 함께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설레고 신체적 접촉을 갖고 싶은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육체적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정신적인 사랑(부모와 자식간, 남매간, 스승과 제자간 등등)도 소중하고 아름답답니다. 비록 지금 매우 혼란스럽겠지만 정신적 사랑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동생과 둘이 있는 기회를 줄이도록 하세요. 동생에게 의지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기 바래요. 실망이나 상처를 주지 않고 둘의 소중한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선부른 행동은 피해야 하죠.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으려면 말이죠.